

고흥군 장애인 시설, '구강진료이동버스'

예빛누리 공동체·고흥 장애인 복지관서 구강검진
전문가 치면세마법·통합건강교육 병행하여 실시

고흥군은 의료취약계층(장애우)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예빛누리 공동체, 고흥 장애인 복지관 등을 직접 찾아가는 '구강진료이동버스'를 운영하였다.

구강진료이동버스는 코로나19로 인해 이동이 제한되고, 몸이 불편한 예빛누리 공동체 회원 18명과 고흥장애인복지관 회원 30여명에 대해 최근 이틀에 걸쳐 구강검진, 전문가 치면세마법, 치아영양제(불소)도포, 의치세척, 구강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자가 관리 능력이 부족한 장애우를 치과의사가 직접 잇솔질 해주는 전문가 치면세마법을 실시, 회원들이 강한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구강이동진료버스 운영은 사전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감염예방을 위해 참여자 사전신청을 받아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하였고, 통합건강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고흥군보건소에서는 고흥 장애인복지관 회원을 대상으로, 코



코로나19로 지친 심신(心身)을 단련 하도록 주 1회(총 15주) 요가교실을 운영 중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취약계층(장

애우)의 구강건강유지와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광주복지재단,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친절한 회계교육' 성료

소규모시설 특성에 맞는 회계실무교육 진행

재단법인 광주복지재단은 지난 13일과 19일 양일간 아동·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60명을 대상으로 '회계분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친절한 회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재무회계규칙의 내용 및 절차의 이해를 도와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있어 투명한 회계 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이번교육은 현장의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사례중심으로 진행됐다. 재무회계규칙의 기본적인

이해,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용어 및 절차 이해, 회계업무에 대한 수행 과정 절차 이해와 실무사례 적용, 후원금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관리 등 시설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과 사례가 주요내용이었다.

강의를 수강한 양광현(사나래공동생활가정)씨는 "회계에 대한 흐름과 실무에서 필요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강의 자료로 공유해 주신 회계 관련 서류들을 잘 활용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전남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회장, 사랑의 열매 대상 희망장 표창 수상

전남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회장 남궁경문)는 나눔 문화 확산 및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제7회 사랑의 열매 대상 희망장 표창을 수상했다.

사랑의 열매 대상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모금제도 및 모금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로 7회째를 맞고 있다. 나눔장과 공헌

장, 행복장, 희망장 등 총 4개 부문으로 나뉜다.

전남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는 전남지역 16개시도 25개 회원기관이 하나로 결속되어 전남지역 발달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년 '한마음 대회'를 실시하여 장애인들의 자존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와, 희망 나눔캠페인 '사

랑의 온도담 제막식' 참여를 통해 나눔의 실천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도 제공하며, 종사자 힐링&소통 워크숍 프로그램을 통해 주간보호시설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 논의를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자기 계발 및 역량강화의 기회로 삼고 있으며, 전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업 '종사자 임파워먼트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사업, 마스크 지원사업 등 다양한 활동으로 전남지역 발달장애인들이 용기와 희망을 넣어주고 있는 점이 인정됐다.

영광=서희권기자



지난 23일 해뜨는 집 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사랑의 열매 대상(희망장) 수여식에서 수상단체인 전남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남궁경문 회장(오른쪽) 및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상균 사무처장(왼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남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제공)

영암군, 노인결핵 전수검진 실시

600여 명 대상 제한적 실시

영암군은 결핵발생률이 높은 노인 취약계층의 환자발견 및 치료를 위해 최근 11개 읍면 노인일자리 사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노인결핵 전수검진을 실시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지역사회 확산 우려로 인해 노인일자리 사업 대상자 6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제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대한결핵협회 광주-전남지부와 연계 이동형 X선 장비를 이용하여 11개 읍·면사무소와 복지회관에서 결핵 상담 및 객담 검사와 흉부 엑스선 검진 등을 통해 결



핵조기 발견과 감염병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노인결핵전수 검진 결과 결핵 유소견자는 추후 2차 검사를 진행하고 결핵균이 발견된 자는 환자로 등록시켜 체계적인 관리와 항결핵제를 무료 처방 등을 실시하여 결핵을 사전에 퇴치할 계획이다.

영암=조대호기자

광주 남구, 2021년도 취약계층 난방연료 수요 조사

광주 남구는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연탄과 등유를 제공하는 '2021년도 난방연료 지원 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남구에 따르면 이번 수요 조사는 지난 16일부터 내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관내 16개동에 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연탄의 경우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가운데 난방연료로 연탄을 사용 중인 가구이며, 등유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등유를 사용 중인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이며, 내년도 난방연료 쿠폰은 관내 16개 동별 수요 조사를 거쳐 내년 1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남구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376세대에 1억1,500만원 상당의 연탄 등을 지원했다.

기동취재본부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

